

한국어 ‘-다 X’의 교육방안¹

金 希 京

Abstract

本稿では、韓国語教育の効率を向上させるため「-daX」の教育戦略に焦点を当てて調査してみる。これまで「-daX」は、形態的かつ意味の変化を伴っていることは認められているが、その成果を教育にきちんと反映しているとは言い難いと考えられる。

本稿では、テキストや辞典などを確認するとともに、「-daX」の教育実態について調べてみる。特に注目している「-daX」は、「-danda, -daji, -dane, -dao, -dabnida」であり、原型が連結語尾の「-dani, -damyeonseo」などに比べて変化の度合いが大きい。また原型が連結語尾である「-dan」などは一次的变化を遂げただけで、原型への還元志向の強いタイプになり、変化の因子はあるが、その資質だけで、実際の意味変化の段階に進んでいないと考えられる。

従って、積極的な意味の変化を遂げ、生産性を持っている「-daX」タイプ(例: 「-danda, -daji, -dani」など)は、学習者のレベルに配慮して、適切な教育を行うべきだろう。このような観点から、本稿では、現行の教材と辞典などを比較分析するとともに、「-daX」の談話環境、出現頻度、形態・意味的变化の程度などを総合的に判断して、学習レベルに適した語彙リストを提案している。

Key words: 韓国語教育・語彙・教授法・学習辞典・テキストの分析・教育戦略

1. 들어가며

본고는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 ‘-다X’의² 교육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다X’는 형태-의미론적 변화를 겪은 형태로 논의되어 왔으나 그 성과가 교육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다X’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더불어 의미-화용적 특징에도 초점을 맞추어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의의 문제제기를 위해서 현행 교재와 사전의 표제 항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X’의 활용 양상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그 언어 환경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휘 정보만이 아니라 의미 변화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화 환경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본고는 대한언어학회와 한국문법학회 공동학술대회의 발표문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학술대회를 전후하여 귀중한 조언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와 같은 검토를 거쳐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구체적으로는 피교육자의 학습 수준에 따른 단계별 지도안, 추천 어휘 목록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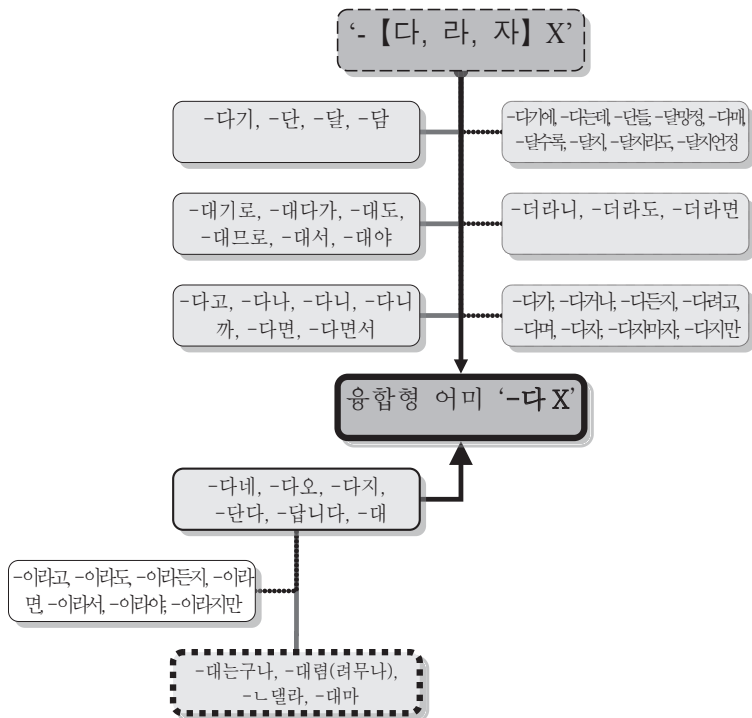
2. 교육 현황

최근 의사소통 기능과 문법을 통합해서 교육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법 기능에 치중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다X’의 형태-의미론적 변화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지도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학습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기본적인 어휘 정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교재와 학습용 사전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자에 대해서는 ‘-다X’의 수록 여부를, 후자에 대해서는 표제항 유무, 문법 설명, 품사 정보, 빈도수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다X’를 소개한 초급 교재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한국어 교재에서 ‘-다X’의 수록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 본고에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다고, -다니, -다면서, -단다, -다지, -다네’의 등재 현황을 다음 <표1>에 제시한다.

2 본고에서 말하는 ‘-다X’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다X’의 어휘 집합>김희경(2010:107)에서 발췌

<표 1. 한국어교재의 ‘-다X’ 수록 현황>

교재 원형	‘-다X’ 유형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세종대
연결형	-다고	0	0	0	0	0	0
	-다니	0	0	0	0	X	0
	-다면서	0	0	0	0	0	0
종결형	-단다	X	0	0	X	0	X
	-다지	0	0	0	0	X	X
	-다네	X	X	0	0	X	X

<표1>은 대학별 교육기관에서 발행된 한국어 교재에 ‘-다X’의 수록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다X’에 대한 설명이 주로 3·4·5급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⁴ 학습 대상자를 중급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보면 원형의 품사가 연결어미였던 ‘-다고, -다니, -다면서’를 다루는 교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화용론적 특징의 하나인 실제 담화에서의 출현 빈도수를 반영한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다X’의 다양한 활용 양상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법 설명에 있어서도 추가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적절한 예문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고 하기 힘들다. 구어에서의 고빈도 실현을 의식하여 ‘-요’와 결합된 ‘-다고요, -다면서요, -다니요’를 소개하는 것은 좋지만 표제항 선정에 명확한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 가령, ‘-다니(요)’와 ‘-다면서요, 더라고(요)’를 함께 기재하거나 ‘-다고요, -더라고(요)’ 또는 ‘-다고(요), -더라고요, -다니까’를 한 교재에 실는 등 학습자에게는 오히려 혼란의 여지를 줄 수도 있다. 이것은 ‘-다X’의 원형, 문장 구조적 특징, 담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⁵

이런 문제는 사전의 등재 항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교육자가 학습 과정에서 접하게 될 한국어사전류에는 ‘-다X’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다음 예를 중심으로 사전별 등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3 선행 연구로 박나리(2004), 하지선(2006), 이소연(2009), 손옥현·김영주(2009)이 있는데, 박나리(2004)는 기존 한국어 교재의 형태·통사적인 의미만을 제시하는 한계를 지적하고 담화 화용적 기술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선(2006)에서는 ‘-고/구’, ‘-니까’, ‘-어서’와 ‘-거든’, ‘-는데’, ‘-다고’, ‘-다면서’, ‘-다니까’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전자를 ‘종결어미 기능 연결어미’, 후자를 ‘종결어미화 된 연결어미’로 보았다. 한편 이소연(2009)는 한국어 교재, 사전을 분석 대상으로 융합형 종결미의 제시순서 목록을 만들었다. 손옥현·김영주(2009)에서는 화용론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고빈도 순의 ‘-고>-는데>-다고>-거든>-다니까>-다면서>-려고>-게’의 제시를 주장한 바 있다.

4 서울대 3급, 서강대 4급, 연세대 5급에서 각각 다루어지고 있다.

5 이것은 다른 융합형 어미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원해영(2011:316)에서 ‘-잖아요’가 목표 학습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6종의 교재를 분석하였는데 그 중 4종의 교재는 추가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음을 문제시하였다.

<표 2. 한국어 사전별 ‘-다X’의 등재 현황>

한국어사전	중결어미		-단다		-다고		-라고		-나고		-자고	
	문법 범주	내용	문법 범주	내용	문법 범주	내용	문법 범주	내용	문법 범주	내용	문법 범주	내용
우리말큰사전 (한글학회)	어미	‘-다 한다’의준 말	어미	중결어미‘-다’에 인용격조사 ‘고’가 합친 것	어미	명령형어 미‘-라’에 인용 격조사 ‘고’가 더해진 말	어미	‘-나 하고’의 준말	없음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	없음		없음		어미	명령토 ‘-라’에 인용격조사 ‘고’ 가 붙은 것이 생략된 형태	없음					
새국어사전 (동아)	어미	‘-다고 한다’가 줄어서 된 말	어미	중결어미 ‘-다’와 인용 조사 ‘-고’가 합친 말	어미	명령의 내용을 인용하는 연결 어미, ‘아니 다’에 붙는 연 결어미	어미	‘-나 하고’가 줄어서 된 말				
국어대사전 (금성)	준말	‘-다고 한다’가 준말	없음	어미‘-다’와 부 사격조사 ‘고’ 가 결합한 말	없음	어미 ‘-라’와 부사격조사 ‘고’가 결합한 말	없음	어미 ‘-나’와 인용의 부사격 조사‘고’가 결 합한 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어미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을 객관화하여 청자에게 알려 주는 데 쓰는 중결 어미	어미	자신의 생각이 나 주장을 청 자에게 강조하 여 알려 주는 뜻을 나타내는 중결 어미	어미	자신의 생각이 나 주장을 청 자에게 강조하 여 알려 주는 뜻을 나타내는 중결 어미	어미	거듭 물음을 나타내는 중결 어미				
한국어학습사전 (국립국어연구원)	어미	말하는 사람 이 이미 아는 사실을 객관화 하여 전달함을 나타내는 중결 어미	어미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 을 듣는 사람 에게 강조하여 말함을 나타내 는 중결 어미	어미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 을 듣는 사람 에게 강조하여 말함을 나타내 는 중결 어미	어미	앞서 했던 질 문을 다시 물 음을 나타내는 중결 어미	어미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 을 듣는 사람 에게 강조하여 말함을 나타내 는 중결 어미		

<표 2>에 의하면 국립국어원의 두 사전 외에는 ‘-다X’의 일부 형태만이 표제어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어대사전(금성)에는 ‘-단다’가 준말로 실려 있고 ‘-다고’ 등 문법 항목이 누락된 채 등재되어 있으며 우리말, 조선말, 새국어사전에서는 ‘-자고’를 아예 다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과 달리 한국어학습사전에서는 ‘-다X’의 형태별 표제항을 개별적으로 설정하여 담화의 예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어 교육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전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1999년 간행)에서는⁶ ‘-다고, -다니, -다면, -다든지, -다더니’의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의 표제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표제어로 ‘-(는/L)단다’를 제시하면서 ‘-(느/으)난다, -잔다, -(으)란다, -(이)란다’를 추가로 설명한 후 강조의 어휘 의미를 형성하는 중결어미라는 설명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다X’의 화용론적 특징에 대해서는 참고란에 추가 설명을 덧붙여 놓았다.

이상 학습 교재와 사전에 있어 ‘-다X’의 기재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습 교재에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X’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나 표제항의 선정 및 관련 설명은 일정한 기준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학습 사전에서는 ‘준말, 어미’ 등 문법 범주 및 기재 내용에 있어서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외국어별로 간략한 설명(시범 운영 중)과 예

6 한국어문법사전(2004:230) 일본어판(백봉자, 三修社)을 참조할 수 있다.

를 함께 제시하는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어 일정 정도의 교육 효과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오류 수정 등 엄격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표제어 선정 작업에⁷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3. ‘-다X’의 교수법

3.1. 어휘 정보를 활용한 교육안

현재 ‘-다X’의 학습 시점을 중급 이상의 학습 과정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한국 어교재에서도 ‘-다X’가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텍스트에서 소개되고 있다. 이것은 문법 항목의 배열 준거를 고려한 것으로 김유정(1998)과 이해영(1998)에서도 이와 유사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교재의 제시 양상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용빈도와 난이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우선시한다면 초급 학습자에게의 교육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습에 따른 부담, 타 문법 항목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중급 과정에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급 이상이라는 애매한 설정만으로는 ‘-다X’의 어휘적 특징을 모두 반영한 효과적인 지도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X’의 형태 통사적 특징과 의미 화용적 특징에 대한 재검토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X’의 어휘적 특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먼저 어휘화, 문법화, 연성⁸, 합성과 융합 현상을 비교 분석해보기로 하자.⁹

- (1) (a) 여보시오 → 여보
 (b) 잘은 소리 → 잔소리, 요사이 → 요새
 (c) (하기) 때문에 → (하기)땀에
 (d) 달갑지 않다 → 달갑잖다, 귀하지 않다 → 귀찮다

- (2) (a) 지금의 시대를 삶에 불편하면서도 전통이기 땀에 고집한다면 그건 전통이 아니에요.(문이)
 (b) 너땀에 속상해 죽겠어.(육남매)
 (c) 나때때 일자리를 놓친 게 틀림없구먼.(당진김씨, 2001)

7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수는 440,594개이고 여기에 부표제어 6만8천여 항목을 합하면 전체 50만8천여 항목에 이른다. 현재 한국어학습사전의 표제어는 그 십분의 일에 달하는 55,229개이다.

8 연속되는 두 모음이나 자음의 연결 과정에서 한 음소가 완전히 탈락하면서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융합이다. Matthews(1974:113)에 의하면 내적 연성(internal sandhi)과 외적 연성(external sandhi)이 있는데 전자는 단어 내부에서 융합을 경험하는 것, 후자는 단어 경계를 사이에 두고 융합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9 본고에 제시된 예문(담화 포함)은 21세기 세종 말뭉치를 활용한 실례에 해당한다.

- (3) (a) 시끄러워, 잔소리 말고 마당이나 쓸어.(고집세)
- (b) 물론 요새는 많이 달라지구 있어요.(남인)
- (c) 아휴 알아 알았다니까. 정말 귀찮게도 하네.(신들)

위 (1a)는 본래 ‘여기를 보시오’에서 유래된 것으로 주로 주의 환기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각구의 두음자를 활용하여 현대에는 부부간의 애칭, 혹은 어미 ‘-세요’와 함께 전화 대응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1b)는 곡용, (1c)는 파생어, (1d)는 구구성에서 각각 음절의 간소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1a)의 ‘여보시오’는 [여기]#[보시오], [여기 + 보시오], [여기 보시오]을 거쳐 [여보]로 실현된다. 유사한 현상으로 ‘대한민국’이 ‘한국’으로, ‘노른자위’가 ‘노른자’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피해자’로 변하는 혼효(blending)와¹⁰ 두자어(acronym)¹¹ 등과 함께 논의된다. 이런 예들은 형태 경계의 소멸과 음운의 변화를 통해 음절의 감소를 겪었기 때문에 원형과 교체가 가능한 데 비해서 (1a)는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했기 때문에 원형과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차이를 보인다.

(1b)는 자립 요소인 ‘소리’가 의존 요소 ‘잘-’과 함께 형태 변화를 겪어 (3a)와 같이 ‘잔소리’로 나타난다. (1c)는 (2a-b)보다 구어에서 점차 (2c)와 같은 형태로 실현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원형 ‘때문에’는 ‘땀에’ ‘때페’ 이외에도 ‘땀시’와 같이 실현되기도 한다. 즉 형태적 변화를 겪으면서 문법 기능의 변화를 동반하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¹² 이것은 구어(colloquial)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특히 빠른 발화에서¹³ 고빈도의 실현을 보인다. 융합 현상은 이와 같은 형태적인 경계 삭감을 통해 일어나는 음절의 간소화 현상과 관련된다. 그러나 융합은 인접한 요소들 사이의 음운적, 형태적, 의미적 관련성(relevance)을 동반해야 한다. 원형 ‘때문에’는 ‘땀에’ ‘때페’이외에도 ‘땀시’와 같이 실현되기도 한다. 즉 형태적 변화를 겪으면서 문법 기능의 변화를 동반하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¹⁴

10 혼효는 인접한 구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융합과 구별되며, 언어는 통사 구성의 변화를 포함하지 않고 파생적 기능을 갖지 않으며 문법화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융합과 각각 구분된다. 혼효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 김완진(1973), 이익섭(1981)이 있으며 언어에 대해서는 김진해(2000)을 참조할 수 있다.

11 Bloomfield(1967)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의학 박사를 의미하는 ‘Doctor of Medicine’가 “M.D.”로, 철학 박사를 의미하는 ‘Doctor of Philosophy’가 “PH.D.”로 변하는 현상은 복합어와 합성어에서 단축형(clipped word)이 만들어지는 것과 연관된다.

그리고 Jespersen(1924)에서도 ‘선행 단축형(stump word)’과 ‘후행 단축형(clipped word)’을 다루면서 전자는 앞부분을 생략하고 마지막 음절만 남겨 쓰는 현상으로 후자는 어린아이가 말을 처음 배울 때 실수로 후행 요소를 생략하는 경우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가령 ‘Albert’나 ‘Herbert’를 “Bert”라고 하거나, ‘Arabella’를 “Bella”로, ‘Alexander’ 대신에 “Sander”를 사용하는 경우가 단축형에 해당한다.

12 ‘-땀에’는 ‘하는 때문에’가 ‘하기 때문에’로 변한 후 ‘하기땀에’와 같이 접속사로 문법 기능이 변화한다. ‘때문에’가 ‘-땀에’로 변하는 것은 접속사에서 조사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3 김성규(1999)에서도 이런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것은 의미 부담이 줄어들어 일어난 음절 간소화 현상으로 보고 있다.

14 ‘-땀에’는 ‘하는 때문에’가 ‘하기 때문에’로 변한 후 ‘하기땀에’와 같이 접속사로 문법 기능이 변화한다. ‘때문에’가 ‘-땀에’로 변하는 것은 접속사에서 조사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3c)의 ‘귀찮-’은 원형 ‘[귀(貴)하- + -지 + 아니- + 하-]’에서 형태적, 의미적 변화를 겪었지만 (1d)의 ‘달갑지 않-’와 ‘달갑잖-’은 상호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귀찮-’와 차이를 보인다. ‘귀하지 않-’이 ‘귀찮-’으로 변화하면서 ‘몸가짐이 목중하고 의젓하다, 품격이 야하지 않고 고상하다’는 새로운 의미 기능을 갖게 되므로 후자는 전자와 바꿔 쓸 수 없게 된다. 즉 원형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형태로 자리잡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에서 이어나 원인을 나타내는 ‘때문’과 ‘-에’의 의미적 관련성으로 인해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놓인다. 인접 요소들 사이의 형태 경계가 흔들리면서 선행형 요소의 축약, 탈락이 일어나고 여기에 다시 재구조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는 것이다.¹⁵ 그러나 융합 현상은 이런 외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의미의 변화를 더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준말과 합성어와 달리 융합은 형식의 간소화를 겪으면서도 여기에 새로운 어휘 의미의 형성이라는 과정이 부가된다. 예를 들어 (3c)의 ‘귀찮-’은 원형 ‘귀하지 않-’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고 원형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다.¹⁶ ‘괜찮-, 점잖-’ 등과 마찬가지로 ‘귀찮-’은 형태·의미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단어로 거듭난다고 할 수 있다.¹⁷

융합형은 형태·의미론적 어휘화를 통해 원형으로의 환원이 불가능한 새로운 어휘 집합을 형성하게 된다.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융합형 ‘-다X’는 이런 과정에서 일련의 변화를 겪어 생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 사실을 학습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다X’의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먼저 ‘-단다, -다지, -다네, -다고, -다니, -다면서’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고 기본적인 어휘 정보를 정리하기로 한다. 다음 예를 통해 ‘-다X’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4) (a) 불고기기는 노인들은 이가 시원찮아 잘 먹지 못 하니 좋아하지 않으신단다.(좋은 생각, 2000)
 (b) 달 속의 넷물은 바깥 말러붙었다.(상록수)
 (c) 세상이 달라졌어, 이제.....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시대는 지났다구.(육남매)
 (d) 몸이 나빠서 간다고.(또 하나의 문화)
 (e) 이렇케 훌륭한 놈을 입맛만 다시고 못 먹다니.(만무방)
 (f) 그 영화 주제가도 직접 부르셨다면서요?(한밤)
 (g) 그.....편지에다가 그 유명한 ○○○씨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쓰셨다면서요.(선토)
- (5) (a) 그래, 농군의 살림이란 제목 매기라지.(만무방)

15 언어학에서 재어휘화 또는 재구조화로 논의되고 있는 ‘relexicalization’ 현상은 원래 King(1969:39)에서 기저형의 변화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다. 한편 최명옥(1993)에서는 어간이나 어미의 기저형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공식적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때 재구조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구조화를 통사 구조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차용하고 있다.

16 이필영(1995)과 안명철(1992)에서는 이런 성질을 고려하여 융합형을 환원적 융합형과 비환원적 융합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17 세부 논의는 김희경(2010, 2017)을 참조할 수 있다.

- (b) 그렇길래 떠꼐 모아 태산이라지.(상록수)
- (c) 이게 꿈이나, 생시나 이런 죄인을 살려주시다니.(옛날)
- (d)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메밀)
- (e) 그럼 이것이 곱색줄이라네.(금궁)

(4a-g)와 (5a-e)는 세종 말뭉치에서 추출한 ‘-다X’의 예로 원형으로의 환원 여부, 선어말어미 및 ‘-요’와의 결합, 의미 자질 등 기본적인 어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면서, -라면서’는 ‘-다고’ 다음으로 고빈도의 출현을 보이고 있는 어미로 (4f-g)와 같이 ‘-요’와의 결합이 빈번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을 반영하여 적절한 설명과 더불어 지도안이 마련된다면 효과적인 교육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X’는 본래 ‘-다 하-’구문의 형태적, 의미적 변화에 의해 형성된 융합형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안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 정보를 선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X’를 준말로 몽땅 그려 지도한다거나 원형인 인용 구문에 중점을 두어 소개한다면 학습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중급 학습자를 위한 교안에서는 ‘-다/대-’의 교체(alternation) 여부를 제시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는 어색한 문장이 되고 ‘-다’만 자연스러울 경우 인용문의 성질이 사라져 원형과의 유연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의미 기능을 갖는 융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X’의 어휘 정보를 종합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중급 학습자용 ‘-다X’ 어휘 정보>

제약		유형	융합형 종결어미				
			‘-다지’	‘-다네’	‘-단다’	‘-다니’	‘-다고’
선어말어미	-시-	+	+	+	+	+	+
	-겠-		-		+	+	+
	-더-	+	+	+	+	+	+
	-었/았-	+	+	+	+	+	+
의미 자질		[-추정][+사실성][확인, 강조]			[겸손, 놀람]	[확인, 놀람]	[따짐, 확인]
‘-다/대-’ 수의적 교체		-			+	+	+
제약		명령형 어미가 융합 형성에 적극적			*나면서 ¹⁸ 명령, 청유형은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에 제약		

위 <표 3>의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하X’의 형태적, 의미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중급 이상의 레벨에서의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습 목적과 시기에 맞는 지도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급 학습자는 상관적 발화에서 실현된 ‘-다X’의 의미 화용론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커리큘럼을 짜야 하는 반면, 중급 학습자는 고빈도 실현을 보이는 ‘-다X’를 중심

18 비문임을 말한다.

으로 형태 통사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법적 활용 등을 학습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초급 및 중급 학습자들에게는 동기 부여와 의사소통 기능의 향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한편 고급 과정의 학습자들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교육안을 통해 학습자의 개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수법 마련을 위해 ‘-다X’의 담화 문맥적 실현 양상에 대한 주의 환기는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3.2. 담화 정보를 활용한 교육안

그렇다면 ‘-다X’의 화용적 특징에 주목하여 고급 학습자를 위한 어휘 정보를 모아 보기로 한다. 먼저 앞서 살펴본 ‘-단다’는¹⁹ 상관적 발화 상황에서 화자의 태도가 비교적 단정적,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객관적인 태도 이외에도 뽐내는 듯한 태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 교훈적인 명제를 강조하는 등 다양한 어휘 의미를 갖는다.²⁰ 또한 이런 ‘-단다’가 문장에 나타날 때는 다양한 억양을 동반하기도 한다. 가령 으스대는 태도를 나타낼 경우 상승(rising) 억양을, 명제의 확정성을 나타낼 경우 하강 억양(fading)을 각각 수반하기도 한다. 이것은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안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학습 교재의 설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담화 정보이다. 이런 의미 화용론적 특징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높은 교육 효과를 노려야 할 것이다.

한편 고급 학습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다X’의 어휘 항목의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교수 항목의 배열 준거는 빈도수와 난이도, 그리고 이 밖에도 화용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기능과 과제, 학습자의 기대 문법, 연계성, 체계성, 학습과 교수의 용이성, 일반화의 가능성 등이 추가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²¹

먼저 ‘-다X’의 실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다(8회), -다지(14회), -다네(4회), -다고(117회), -다니(32회), -다면서(113회)’

위와 같이 통사적 구 구성에서 이루어진 융합형 중 ‘-다고, -다면서, -다니’가 고빈도의 실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난이도와 학습자의 기대 문법 역시 중급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X’의 교육안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구체적으로는 초급과 중급 전반에서 교육되는 문법적 원리와 중급 후반과 고급 과정에서 제시되는 문법 제약이 그것인데, 여기서는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로 통사적 범주 변화를 겪은 ‘-다거나, -다지만, -다길래, -다는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 <<사실성>>의 ‘-겠-, -더-’와 함께 나타난 ‘-단다’는 찾아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이 추측의 ‘-겠-’과(L) 회상의 ‘-더-’가(C) 삽입된 문장은 자연스럽게 못하다.

세부 논의는 김희경(2010, 2017) 참조.

(ㄱ) 과장님은 자기가 오겠다고 했다.

(L) *과장님은 그 친구가 아마 오겠다고 했다.

(C) *주인은 자기가 먹더라고 했다.

(R) 주인은 그 친구가 먹더라고 했다.

20 안명철(1992:104)에서 ‘-단다’를 간접적, 방관자적, 피동적 의미를 가진 융합형 어미로 보고 있다.

21 이해영(1998), 김유정(1998), 성기철(2002), 이미혜(2005)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다음 (6)은 통사적 구성을 가진 ‘-다X’의 예이다.

- (6) (a) 인제 마누라가 하게 된다거나, 뭐 밥을 태운다거나, 그러니깐 몸에 익지 않았으니
까, 그렇죠?(남자의 인격)
- (b) 유지의무 있다건만 / 우리 사회 업이 업네.(경향(1907))
- (c) 여성시대 책 준다기에 방문한 날이랍니다.(여성시대)
- (d) 삶의 내용이 많다기에 아, 좋다. 나도 한 번 책을 구해서 읽어 보려고 했는데.....
(여성시대)
- (e) 어쩔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따뜻하다는데 어찌 이리 추운고.....(옛날 옛적에)
- (f) 가령 삭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식을 간단히 하라든지, 그 남녀간의 관계라든지,
여성의 어떤 인격 그런 것들을 고친다든지.....(문화이론)
- (g) 따돌림의 대상이 한다지만 그 학생이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mbc뉴스)
- (h) 말순이가 달걀 먹구 싫대서 저기 올라갔다.....(육남매)

(6a-g)는 (6h)와 같이 ‘-다/대-’의 환치(permutation)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²² 이와 더불어 선 어말어미 ‘-겠-’을 비롯하여 ‘-요’와의 결합 여부 등에 대한 형태적 특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형으로의 환원 가능성에 따라 문장 구조와 어휘 의미의 상이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 두 담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7) 담화 A <운수 조흔 날(개벽 제5권 6월호), 현진건>

- (김 침지는 연해 코를 들여마시며) <sp 1>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sp 2>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sp 1> 이놈아 언제는 오늘이지.
<sp 2> 옛기 미친 놈 거짓말 말아.
<sp 1> 거짓말은 왜, 참말로 죽었서. 참말로.....마누라 시체를 집에 ·들쳐 노코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하고 김 침지는 영영 소리를 내어 운다.)
<sp 2> (치삼은 흥이 죽음 ·여지는 얼굴로) 윈 이사람이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그러
면 집으로 가세 가.(하고 우는 이의 팔을 잡아다리었다.)
<sp 1> (치삼의 잡는 손을 ·리치더니 김 침지는 눈물이 걸신걸신한 눈으로 싱그레 웃는다.)
죽기는 누가 죽어.(하고 득의양양) 죽기는 왜 죽어. 생·가티 살아만 있다. 그 오라질 년
이 밥을 죽이지. 인제 나한테 속았다. 인제 나한테 속았다.(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손벽을

22 이필영(1993:118-2)에 의하면 상위 동사가 ‘-다 하-’인 경우 융합형은 ‘-대-’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령, ‘-다 하여도, -다 하여서, -다 하여야’는 ‘-대도, -대서, -대야’로 실현된다. ‘하-어-X’는 ‘하-’가 본래 ‘해-’로 교체될 수 있는 형태적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현희(1986)와 정광(1986)도 ‘하-’가 ‘해-’에서 기원된 형태라고 보고 있다.

치며 웃는다.)

(8) 담화 B <고집세, 길창덕>

- <sp 1> 지금 돌아 오세요. 꼬마 손님이 낮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 <sp 2> 왔다! 나최고 아저씨. 많이 기다렸다고. 였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 <sp 3> 돌아가냐? 우리반 친구들 줄 것 83장. 그리고 또 우리 동네 친구들 줄 것도 해주셔야 해요.
- <sp 2> 까오! 임자 만났구나.

위의 (7-8)은 담화 문맥적인 '-다X'의 실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7)의 '-단다, -다니, -다네'와 (8)의 '-다고, -다니 + -요'는 시제 선어말어미와의 자유로운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모문의 화자가 외현될 수 없는 '-다네, -단다'와 '-요'와의 결합으로 복문을 이룬 '-다니'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X'의 실현 과정에서 동반되는 다채로운 억양에 따라²³ 상이한 양상을 보이므로 이런 의미 화용적 특징 역시 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음 <표 4>에 '-다X'의 어휘 의미와 발화 상황 높임법, 문체 등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표 4. 고급 학습자용 '-다X'의 담화 정보>

특성 원형	'-다X' 유형	선어말 어미 결합		의미	'-다/대-' 교체	발화 상황	문장 구성	모문 주어	높임법
		-었-	-겠-						
연결형	-다니	○	○	제3자의 뜻밖의 발화에 대한 반사적 물음 명제의 기정사실화	대니	상관/단독적	복문 (의문/평서형)	2/ 3인칭	해체
	-다고	○	○	청자를 전제로 전달 태도에 대한 판단을 표시	대고	상관적	복문(의문형)	2/ 3인칭	해체
	-다면서	○	○	제3자의 선행발화에 대한 확인 물음	대면서	상관적	복문(의문형)	2/ 3인칭	해체
종결형	-다지	○	×	소극적 물음	*대지	상관/단독적	단문(의문형)	없음	해체
	-다네	×	×	화자가 단정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간접적으로 청자에게 알림	*대네	상관적	단문(평서형)	없음	하계체
	-단다	×	×	명제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믿음	*댄다	상관적	단문(평서형)	없음	해라/하계/하오/ 하십시오체

23 억양을 수반함에 따른 '-다X'의 의미 변화는 다음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희경(2002:97))

<표 5. '-다X'의 화용론적 특징:억양편>

유형 특징	융합형 종결어미							
	'-다네, -단다'	'-다니'		'-다고'			'-다면서'	
억양	↘	↘	↗	↘	↗	↑	↘	↗
의미	확인, 강조	겸손	놀람	확인	반복	놀람, 비꼬	확인	따짐, 비웃음
특징	기정사실화	혼잣말 가능		혼잣말 가능			화제전환 가능	
제약	공손 등급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			제3자의 발화 확인 불가			상관적 장면에서만 실현	

위의 <표 4>에 의하면 ‘-다X’는 ‘-단다’와 일부의 ‘-다니’ 이외에는 대체로 의문형의 해체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다니, -다지’를 제외하면 대개 상관적 발화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며 원발화자의 설정 또한 ‘-다네, -다지, -단다’와 달리 가능하다는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담화 정보를 바탕으로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어휘 항목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3.3. 학습 수준에 따른 교육 어휘 목록

한국어 어휘교육은 높은 관련성을 가진 어휘 항목을 순차적으로 제시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한다. 학습자의 기대 어휘를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필수 어휘의 선정 과정에서 형태 통사적 특징에만 치우치지 않고 동시에 의미 화용적 특징을 고려할 때 그 응용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세종 말뭉치에서 추출된 ‘-다X’의 어휘 항목에서 중급과 고급의 교육 어휘를 선정해보고자 한다.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이 비교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실현 빈도가 낮은 ‘-다X’는 일차 선별 과정에서 걸러져나가 고급 학습자를 위한 어휘 목록에 포함된다. 이차적으로는 인칭 제약, 문장 구조,²⁴ 높임법, 문체, 발화 상황 등의 담화 정보를 참고하여 중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 어휘 목록을 선정하게 된다.

다음 (9)와 (10)의 일차 관문을 통과한 ‘-다X’ 어휘 목록을 고급 학습자에게, 그리고 실현 빈도수와 담화 문맥적 양상 등을 통해 최종 선별된 어휘 목록을(밑줄) 중급 학습자에게 각각 제공함으로써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여 (9)와 (10)에 중급 학습자를 위한 추천 어휘 목록을, (11)에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 어휘 목록을 각각 제시한다.

- (9) (a) -다 하거나 : -다거나, -냐거나, -라거나, -자거나
- (b) -다 하거나와 : -다거나와, -냐거나와, -라거나와, -자거나와
- (c) -다 하건만 : -다건만, -냐건만, -라건만, -자건만
- (d) -다 하기에 : -다기에, -냐기에, -라기에, -자기에
- (e) -다 하길래 : -다길래, -냐길래, -라길래, -자길래
- (f) -다 하느니 : -다느니, -냐느니, -라느니, -자느니
- (g) -다 하는데 : -다는데, -냐는데, -라는데, -자는데
- (h) -다 하는지 : -다는지, -냐는지, -라는지, -자는지
- (i) -다 하다가 : -나다가, -라다가, -자다가
- (j) -다 하든가 : -다든가, -냐든가, -라든가, -자든가
- (k) -다 하든지 : -다든지, -냐든지, -라든지, -자든지
- (l) -다 하지만 : -다지만, -냐지만, -라지만, -자지만
- (m) -다 해도 : -대도, -내도, -래도, -재도

24 조남호(2002)에서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빈도를 정리하여 ‘-다면서’는 연결어미로 쓰인 경우가 없고(0회:22회) ‘-다고’와 ‘-다니’도 연결어미보다 종결어미로 사용된 빈도(455회:645회, 19회:158회)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 (n) -다 해서 : -대서, -내서, -래서, -재서
- (o) -다 해야 : -대야, -내야, -래야, -재야
- (p) -다 하여 : -대, -내, -래, -재

- (10) (a) -다 하고 : -다고, -냐고, -라고, -자고
- (b) -다 하나 : -다나, -냐나, -라나, -자나
- (c) -다 하네 : -다네, -냐네, -라네, -자네
- (d) -다 하느냐 : -다느냐, -냐느냐, -라느냐, -자느냐
- (e) -다 하는가 : -다는가, -냐는가, -라는가, -자는가
- (f) -다 하는걸 : -다는걸, -냐는걸, -라는걸, -자는걸
- (g) -다 하는구나 : -다는구나, -냐는구나, -라는구나, -자는구나
- (h) -다 하니 : -다니, -냐니, -라니, -자니
- (i) -다 하니까 : -다니까, -냐니까, -라니까, -자니까
- (j) -다 하던(터냐) : -다던, -냐던, -라던, -자던
- (k) -다 하던가 : -다던가, -냐던가, -라던가, -자던가
- (l) -다 하더라 : -다더라, -냐더라, -라더나, -자더라
- (m) -다 하면 : -다면, -냐면, -라면, -자면
- (n) -다 하면서 : -다면서, -냐면서, -라면서, -자면서
- (o) -다 하오 : -다오, -냐오, -라오, -자오
- (p) -다 하지 : -다지, -냐지, -라지, -자지
- (q) -다 한다 : -단다, -난다, -란다, -잔다
- (r) -다 할 걸 : -달 걸, -날 걸, -랄 걸, -잘 걸
- (s) -다 합니다 : -답니다, -납니다, -랍니다, -잡니다
- (t) -다 합디다 : -답디다, -납디다, -랍디다, -잡디다

- (11) (a) -다고, -라고
- (b) -다나
- (c) -다네, -라네
- (d) -다니, -라니
- (e) -다니까, -라니까
- (f) -다더라
- (g) -다면, -냐면
- (h) -다면서
- (i) -다오
- (j) -다지, -라지
- (k) -단다, -란다

- (l) -답니다, -랍니다
- (m) -다는데

이상 중급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다X’의 교육 어휘 목록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차적 관별 기준은 원형으로의 환원, 의미 자질, 통사 범주의 변화, 실현 빈도수, 선어말어미와의 결합도, ‘-다/대-’의 교체 등 형태 통사적 특징이고, 이차 선정 기준을 ‘문장 구조와 인칭 제약, 억양에 따른 의미 변화, 높임법, 서체’ 등 화용론적 특징을 우선시하였다. ‘-다X’의 어휘 정보와 담화 정보를 활용하여 학습 수준에 맞는 교육안 및 어휘 목록이 마련된다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차례 면밀한 검증을 통해 교육용 추천 어휘 목록의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4. 글을 나가며

본고는 ‘-다X’의 어휘적 특징을 반영한 교육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학습 교재와 사전의 표제어에 대한 검토를 비롯하여 ‘-다X’의 원형으로 환원 여부, 새로운 어휘 의미의 획득, 범주의 변화, 실현 빈도수 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X’의 의미 화용적 실현 양상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다.

- 1) 중급 학습자를 위한 ‘-다X’의 어휘 정보는 원형으로의 환원 여부,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양상, 의미 자질, ‘-다/대-’의 수의적 교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 2) 고급 학습자를 위한 ‘-다X’의 담화 정보는 문장 구조와 인칭 제약, 높임법, 서체 등 의미 화용적 특징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 3) 학습 교재의 편성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사전 표제어(headword)의 선별 과정에 있어서도 기재 내용의 통일성, 담화 상황을 반영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 항목의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용 어휘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 5) ‘-다X’ 어휘 집합과 관련 범주의 어미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교육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고의 논의가 어휘 교육에의 활용, ‘-다X’의 교안 및 교재 작성, 학습 사전의 표제어 선정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주요 참조문헌

- 김민정(2000), 우리말 합성어의 어휘화 유형 분류, 동남어문논집 10, 동남어문학회, 121-141.
 김상윤(2003), 국어 어휘화 현상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 김성규(1999), 빠른 발화에서 음절수 줄이기, *애산학보* 23, 109-137.
- 김희경(2008), 한국어 '-잖/잖X'의 통시적 변화 양상,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283-324.
- 김희경(2010), 인용문에서 생성된 융합형 어미 연구, 창문출판사
- 김희경(2017), 'X잖/잖-'의 교육 방안, *국제사회연구* 6, 福岡女子大学紀要, 15-25.
- 김희경(2017), 新型語尾における融合現象の活性化・抑制過程に関する研究—通時的变化による語彙の多義性に及ぼす融合現象の考察, *ブックレップ*, 1-226.
- 퇴영정(2015),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다고 하-' 융합형 종결어미 연구, 한국외대 석사논문.
- 박영숙(2011),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다고 하-' 융합어미의 담화기능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 백봉자(2004), 한국어 문법 사전, 三修社.
- 손세모들(1999), '-잖-'의 의미, 전제, 함축, *국어학* 33, 국어학회, 213-240.
- 안명철(1992), 현대국어의 보문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원혜영(2011), 한국어교육을 위한 구어체 종결어미 '-잖아(요)' 연구, *영남언어문학* 79, 307-327.
- 이 숙(2007), 한국어에 나타나는 이동의 어휘화 형식, *이중언어학* 33, 이중언어학회, 169-188.
- 이지양(1998), 국어의 융합현상, 태학사.
- 이태영(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 이필영(1995),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탐출판사.
- 조성문(2000),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7, 5-16.
- 정연희(2001), 한국어 연결어미의 문법화 연구, 한국외대 박사논문.
- 최대회(2002), 국어 풀이씨의 문법화 과정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 최명옥(1991), 어미의 재구조화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 (<http://stdweb2.korean.go.kr/guide/etc.jsp>)
- 한국어기초사전(2012), 국립국어연구원 (<https://krdict.korean.go.kr/statistic/dicStat>)
- 홍윤표(2007), '여보'의 어원, *쉽표·마침표*, 국립국어원.
- 홍종선 외(2006), 근대국어 형태의 연구, 역락출판사.
- Hopper, P. J. & Traugott, E. C.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 Press.
- Marantz, A. (1985), *The Nature of Grammatical Relations*, Cambridge MIT Press.
- Matthews, P. H. (1974), *An Instruction to the Theory of Word-structure, Morphology*, Cambridge Univ. Press.
- Spike, G. (2000), *Reconstructing grammar, Comparative linguistics and Grammaticalization*, J. Benjamins.

